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5.99>

JCCT 2024-9-12

## 한국전쟁과 보훈외교: 발전방향과 과제

### Korean War and Veterans Public Diplomacy

문예찬\*

Yechan Moon\*

**요약** 한국전쟁은 63개국이 참전한 국제전이며, 모든 대륙에서 참여한 유일한 개별국가전쟁이다. 이러한 한국전쟁의 특징은 국내적 차원의 보훈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와의 국제보훈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국전쟁 참전국과의 보훈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맞아 앞으로의 보훈 공공외교의 발전방향과 과제를 제언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물자지원국과 전후복지지원국, 지원의사 표명국으로 범위 확대와 기존 유엔 참전국 보훈 강화의 관점에서 보훈공공외교의 발전방향을 제언하였다. 국내에는 다양한 보훈시설이 있으며, 이를 활용한 적극적인 다크 투어리즘 전개는 한국전쟁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쟁은 국제사회와 한국을 연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보훈공공외교를 통해 과거를 기억하고 지속가능한 국제보훈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어** : 한국전쟁, 국제보훈, 보훈공공외교, 정전 70년, 다크 투어리즘

**Abstract** 63 nations from all continents took part in the Korean War, which was an international war. These aspects of the Korean War point to the potential for global veteran issues. In order to strengthen veterans' public diplomacy in time for the 70th year of the Korean War's armistice, this study will look at the current situation of veterans with nations that took part in the conflict. It will also make suggestions for future directions and tasks. From the standpoint of broadening the reach to include material assistance countries, expressing their intention to help South Korea, and strengthening veterans of current UN veterans, this study offered suggestions for how to promote veterans' public diplomacy. There are many veterans institutions in Korea, and it is anticipated that the active development of dark tourism employing them would help increase interest in the Korean War both domestically and abroad. The Korean War is a crucial event that brought the world and Korea together. It's time to prepare for sustainable international veterans affairs while paying tribute to the past through public diplomacy among veterans.

**Key words** : Korean War, International Veterans, Veterans Public Diplomacy, 70 Years of Armistice, Dark Tourism

#### I. 서론

지난 2022년 7월 27일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관 (Korean War Veterans Memorial)에서 추모의 벽 제

막식이 열렸다. 미국 하원에서 지난 2015년 3월 추모의 벽 건립 관련 법안(Korean War Veterans Memorial Wall of Remembrance Act)을 발의했고 2016년 10월 상원을 통과하며, 2021년 3월 공사를 시작하였다. 추모

\*정희원,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단독저자)  
접수일: 2024년 6월 4일, 수정완료일: 2024년 6월 28일  
게재확정일: 2024년 7월 27일

Received: June 4, 2024 / Revised: June 28, 2024  
Accepted: July 27, 2024  
\*Corresponding Author: soyeon.yoo@gmail.com  
Dept. of Nursing, Kyungil Univ, Korea

의 벽에는 3만 3,695명의 미군과 7,174명의 대한민국 국군 카투사를 합쳐 약 4만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지난 4월 국민 방미한 윤석열 대통령 역시 한국전쟁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6.25 전쟁은 국제전이다. 63개국 이 전쟁에서 참전했으며, 모든 대륙에서 참여한 유일한 개별국가 전쟁이다. 따라서 한국은 국제보훈 공공외교에 관한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다. 6.25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국의 보훈은 자국민 대상의 국내 보훈과 해외 국가(국민)에 대한 국제 보훈을 포괄한다[1]. 따라서 한국전쟁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 보훈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6.25전쟁에 대한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여 보훈외교의 새로운 관점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보훈정책을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보훈을 위한 과제와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그 중에서도, 기존의 한국전쟁 유엔참전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보훈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계기로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한다. 한국전쟁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한 국제전이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현 시점에서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한국의 보훈 정책은 국내 보훈을 넘어, 국제 보훈으로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한국전쟁에 대한 보훈공공외교는 그 출발점이 되어줄 것이다. 한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63개국에 관한 포괄적인 보훈외교 전개가 요구되며, 기존 정책의 한계를 논의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물자지원국과 전후복지 지원국, 지원의사 표명국으로 범위 확대와 기존 유엔참전국 보훈 강화의 관점에서 보훈공공외교의 발전방향을 제언한다. 현재 국내에는 다양한 보훈시설이 있으며, 이를 활용한 적극적인 다크 투어리즘 전개는 한국전쟁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쟁은 국제사회와 한국을 연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보훈공공외교를 통해 과거를 기억하고 지속가능한 국제보훈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2장에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보훈과 국제보훈, 보훈공공외교에 대한 개념을 논의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보훈정책에 대한 과제와 한계, 기존연구가 제안

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가들을 검토하며, 한국전쟁의 특징과 유엔참전국의 특성을 발굴한다. 이후, 4장에서 기존 보훈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며 향후 한국전쟁과 보훈공공외교를 위한 과제와 발전방향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새로운 보훈공공외교 가능성을 정책 범위 확대와 기존 정책 강화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 II. 이론적 배경

보훈은 일반적으로 단일 국가 내에서 이루어진다. 보훈은 공동체의 존립, 유지,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국민들에 대한 보답이며[2], 우리나라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을 보훈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보훈은 이러한 국내보훈과 구별되며, 한국전쟁을 경험한 우리나라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한국전쟁 유엔참전국과의 국제협력 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자주 사용되고 있다[3]. 특히, 국제보훈은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를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훈정책이자 공공외교이다[4]. 또한, 국제보훈은 6.25 전쟁에 참여하여 한국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유엔군과 그 유족, 후손에 보답하는 보훈을 통해 참전국가와 참전국 국민들과의 교류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외교관계를 형성하여 협력적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외교활동이다[1].

한국전쟁의 특수성으로 인해, 선행 연구는 보훈의 범위 확대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인지하였으며 국제보훈과 보훈공공외교에 관한 연구를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기존 보훈정책을 국제보훈과 공공외교와 연계하여 보훈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5][6], 주요 사례를 통해 국제보훈과 공공외교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전달하였다[1][3][7].

라미경 (2015)은 보훈정책을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며, 그에 대한 방안으로 보훈공공외교를 제시하였다. 기존에 이루어진 유엔참전용사 공훈선양 사업, 후손 초청 사업 등 국제보훈 사업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편으로는 보훈외교의 대상과 범위 확대를 강조하였다. 특히, 기존의 정부 주도 사업에서 참여자를 국민, 기업, NGO로의 확대 및 ODA 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한 영역 확장을 강조하며 보훈공공외교의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

오일환 (2015)은 기존 국제보호 사업을 살펴보고 안보효과 측면에서 보훈외교에의 함의를 전달하였다. 보훈공공외교는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외교력과 안보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참전용사의 고령화로 인해 정책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참전용사 중심의 사업에서 현지 보훈 행사 확대, 참전용사 후손 초청행사 등 네트워크 강화 등의 사업을 전개해야 함으로 강조하였다.

형시형, 오일환 (2015)은 소프트파워의 관점에서 보훈외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보훈외교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유엔군 참전용사 공적 발굴, 한국전쟁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확대 등 유엔군 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 확대, 참전용사 후손 초청행사 확대, 후손 네트워크 강화 등 참전국 3세대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외국 보훈부와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적 국제교류협력 강화, 보훈외교 추진을 위한 국내부처의 업무 및 조직 역량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정숙경 (2011)은 한국의 6.25전쟁 경험을 위시한 국제정세와의 밀접한 연관성에 주목하여, 국내 보훈정책에 있어서의 외국과의 연대와 교류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6.25전쟁 참전국들에 대한 보훈을 통해 우호관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참전 기념비 설립, 현지 기념사업 지원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한편, 한국의 보훈공공외교 사례에 주목하여 기존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송샘·유호근 (2021)은 아프리카 사례를 중심으로 보훈을 통한 공공외교 현황을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전달하였다. 한국은 6.25 전쟁 참전국인 에티오피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대상으로 KOICA(한국국제협력단)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 진행, 후손장학사업, 영예금 지급 등의 국제보호 정책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보훈 공공외교의 효과성 확대를 위해 국제보호 네트워크 형성 및 한국의 플랫폼 역할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다.

라미경 (2016)은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사례(한국전쟁에 참전한 16개국)를 통해 한국 보훈정책을 살펴봄, 국내 보훈뿐만 아니라 유엔참전국 대상의 보훈외교 확대 중요성을 제시, 보훈외교 정책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해외 공관을 활용하여 국외 현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유엔참전국의 특성에 따라 선진국과는 인적교류 중심, 개발도상국과는 공적개발원조, 기술

연수 등의 국제협력 중심 사업을 전개해야 함을 논의하였고, 이와 동시에 보훈외교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보훈주재관 파견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였다.

### III. 한국전쟁 참전국과 보훈 현황

#### 1. 한국전쟁 유엔참전국

한국전쟁은 많은 국가들이 참여한 국제전이지만, 구체적인 참전 국가 수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한국전쟁 참전은 전투부대 참전, 의료지원, 물자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국가 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몇몇 국가가 누락되거나 추가되었다. 예를 들어, 2005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전쟁 참전국을 41개국(전투부대 참전국 16개국, 의료지원국 5개국, 물자지원국 20개국)으로 산정하였다[8]. 그러나 월드피스 자유연합이 2010년 기준 참전국 외에 26개국(물자지원 19개국, 전후복구 6개국, 비공식 지원국 일본 1개국)을 추가로 포함해야한다는 의견을 영국 기네스사에 제시하였고[9], 한국전쟁이 가장 많은 동맹국(Most countries to support an ally in war)이 참전한 전쟁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10].

이렇듯, 유엔참전국 수에 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유엔참전국 수를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 정부에서는 6.25전쟁 유엔군 참전규모를 63개국으로 집계하고 있다[11][12][13]. 한국전쟁에는 전투부대 참전국 16개국, 의료지원국 6개국, 물자지원국 38개국, 물자지원 의사표명국 3개국 등이 참여하였다.

#### 2. 참전국 보훈 성과와 한계

한국은 유엔 참전국 및 참전용사에 대해 보훈 정책을 진행해왔다. 기존 보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같이 직접 당사자에게 진행되는 보훈으로,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이 대표적인 예시다. 이 외에도 한국의 국제보호는 참전용사 후손들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먼저,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은 유엔참전용사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감사를 전달하고 은혜를 보답하고자 추진되었으며,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와 유엔참전국과의 관계 증진에 기여하였다. 이 사업은 1975년 한국

전쟁 25주년을 계기로 유엔참전용사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2022년까지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수호한 참전용사들에게 경의를 표명하고, 그들의 희생이 잊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그 희생과 공헌을 통해 이룩한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데 목적을 둔다[14]. 유엔참전용사들은 가평전투(4월) 전투 기념행사, 6·25전쟁 기념식 등과 연계되어 초청되고 전쟁기념관과 현충원, 판문점에 방문한다. 이 외에도 한국은 유엔참전용사 위문품 전달식을 개최하여 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경의를 표현하였다.

한국은 유엔참전용사뿐만 아니라 유엔 참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보훈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유엔 참전국 청소년 평화캠프를 개최하여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고자 한다. 평화캠프는 2009년 처음 개최되었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저소득 국가(에티오피아, 터키, 필리핀, 태국) 참전용사 후손 초청행사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6박 7일 동안 한국에 머물며, 현충원과 전쟁기념관, 비무장지대에 방문하고 한국전쟁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참석에 참석한다. 평화캠프는 후속프로그램의 성격으로 비전캠프(참전용사 후손 교류캠프)를 개최하기도 한다. 비전캠프는 2018년 처음 시작했으며, 네덜란드, 터키, 뉴질랜드, 벨기에, 캐나다 등에서 후손들과 국내 참가자 간 교류 일정을 갖는다.

한편, 유엔 참전국 청소년 평화캠프는 2022년까지 진행되었으며, 청소년뿐만 아니라 교사를 초청하여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미국 교사 초청, 2017년과 2018년에는 규모를 확대하여(2016년에는 10명 초청, 2017년과 2018년에는 30명 초청), <유엔참전국 교사 평화캠프>를 개최하기도 했다. 특히, 2016년에는 미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통해 한국전쟁 바로 알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사회과학분야 교사협회(National Council for Social Studies) 소속 교사 10명이 참여했고, 2017년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디지털 교육자료와 미국 역사교과서 제작에 참여하는 미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교수, 교육 심의관 등이 참여하였다.

#### IV. 새로운 보훈공공외교 가능성 모색

##### 1. 보훈 대상국 범위 확대

국가보훈처는 다양한 보훈공공외교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유엔기념공원 안장자 유족 초청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유엔의 날인 10월 24일 전후 유족을 초청하여 묘소 참배, 전쟁기념관 및 판문점 방문, 평화음악회 참석 등의 일정으로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한국은 코로나19 시기에서는 방역 중심의 보훈 활동을 전개하였다. 지난 2020년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6·25전쟁 유엔참전용사 마스크 지원 사업을 전개했으며, 한국전쟁 유엔참전국 22개국에게 참전용사가 보여준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고자 마스크 100만장을 전달하였다[15].

기존 정책은 한국전쟁에 대한 보훈을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차원으로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증진에 도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훈 대상이 유엔참전국 22개국에 제한되어 있으며, 한국전쟁에 참여하여 한국에 도움을 준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유엔참전국을 전투부대 참전국과 의료지원국만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한국전쟁에 관한 국제보훈과 보훈공공외교는 그 대상이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도 정책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21개국(독일의 의료지원국 지정 이전) 중심의 보훈공공외교에서 대상국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7]. 그러나 이러한 보훈대상의 확대는 새롭게 논의된 내용이 아니다. 기존 정책에서도 지속적으로 보훈 대상 범위가 확장되었으며, 이는 물자지원국과 지원의사 표명국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보훈공공외교 가능성을 제고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1회 유엔 참전국 청소년 평화캠프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태국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이전에는 저소득 참전국만을 초청대상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2010년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유엔참전국 21개국(독일의 의료지원국 포함 이전)으로 대상을 넓혔고, 19개국 313명이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 외에도 각 시기별로 새로운 보훈정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한국은 2003년 한국전쟁 50주년을 계기로 유엔기념공원 안장자 유족 초청 사업을 진행하였다. 한국전쟁 5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전개된 행사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영국, 캐나다, 프랑스, 네

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터키 등의 나라에서 유족을 초청하였다. 즉, 기존 사례들은 정책 대상의 범위 확대나 정책 신설의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한국전쟁 정전은 2023년에 70년을 맞이한다. 70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 수호에 기여한 한국전쟁 참전국들에 대한 보훈공공외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기존 보훈공공외교 정책의 대상을 물자지원국과 지원의사 표명국으로 대폭 확대하여 한국의 공공외교 기회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법령에 따라 유엔참전국에는 6·25전쟁 당시 영국군으로 분류되어 참전하였던 아일랜드와 6·25전쟁 후 네덜란드에서 분리된 수리남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아일랜드와 수리남을 포함한 적극적인 보훈공공외교를 재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범위 확대를 통해 동일한 사업을 진행한다면 몇 가지 고려사항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전쟁에 관련된 다양한 인적교류가 전투부대 참전국과 의료 지원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와의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맞아 기존 22개국에 대한 보훈 강화 역시 모색해 볼 수 있다.

한편, 예산, 인력 등의 문제로 인해 공공외교 대상국 범위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우, 정부 주도 정책을 국민, 기업, NGO로 확대하거나 ODA 사업과의 연계 강화 등을 모색할 수 있다[3]. 그러나 민간 부분에서의 보훈 역시 그 대상을 22개국에 한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유엔참전국 22개국 대사 및 대사관 소속 군인들을 초청하여 <한국전 참전국 초청 감사회> 행사를 개최하였다[16]. 우선적으로 유엔참전국의 범위 확대를 통해 국민, 기업, NGO 등에서 진행되는 보훈공공외교 사업 대상을 넓히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제한된 보훈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 1> 참조). 전투지원국, 의료지원국뿐만 아니라, 물자지원국, 전후복구지원국, 지원의사표명국으로 유엔참전용사의 범위를 넓혀 활발한 보훈공공외교를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기존 유엔참전국 보훈 강화

한국은 유엔참전국의 공헌을 기념하고자 기념비를 제작하였다. (<표 2> 참조) 국내에 건립된 UN군 참전비들은 1) 희생자의 영령보호 및 안치, 2) 국가의 대표적 이미지 형상화, 3) 국가 이미지와 참전의미 혼합, 4)

표 1. 한국전쟁 물자지원국, 전후복구지원국, 지원의사표명국  
 Table 1. Countries Providing Material Support, Post-War Reconstruction Support, and Declaring Willingness to Assist

구분	국가명	구분	국가명	구분	국가명
물 자 지 원 국	1. 과테말라	전 후 복 구 지 원 국	1. 리히텐슈타인	지 원 의 사 표 명 국	1. 니카라과 2. 볼리비아 3. 브라질
	2. 대만				
	3. 도미니카				
	4. 라이베리아				
	5. 레바논				
	6. 멕시코				
	7. 버뮤다				
	8. 베네수엘라				
	9. 베트남				
	10. 사우디아라비아				
	11. 스위스				
	12. 시리아				
	13. 아르헨티나				
	14. 아이슬란드				
	15. 에콰도르				
	16. 엘살바도르				
	17. 오스트리아				
	18. 온두라스				
	19. 우루과이				
	20. 이란				
	21. 이스라엘				
	22. 이집트				
	23. 인도네시아				
	24. 일본				
	25. 자메이카				
	26. 칠레				
	27. 캄보디아				
	28. 코스타리카				
	29. 쿠바				
	30. 파나마				
	31. 파키스탄				
	32. 헝가리				

전쟁과 관련된 이미지 형상화, 5) 자연석 기념 등 다양한 추상적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한 거룩한 희생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17].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맞아 유엔 참전국 참전비를 활용한 공공외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참전국 참전비 방문을 중심으로 한 다크 투어리즘 설계가 가능하다. 다크 투어리즘이란 죽음과 고통 관련 장소를 여행하는 관광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Foley와 Lennon이 1996년에 처음 사용[18], 2000년부터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19][20].

다크 투어리즘은 죽음과 재난에 관련된 실제 장소 혹은 연관된 장소 [18][21], 재난과 참상지 [22][23], 등을 방문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를 한

한국전쟁과 연계하는 노력은 다음과 같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 유엔 참전비를 방문하는 다크 투어리즘을 추진하여 국내 대학(원)생과 국내 거주 해외 유학생을 초청하여 한국전쟁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다크 투어리즘 사업은 국외로 확대하여 진행할 수 있다. 현재 한국전쟁 유엔참전국 참전비는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3개국, 유럽 11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 아프리카 2개국 등 세계 곳곳에 있다.

따라서 국내외 다크 투어리즘을 단계적 혹은 병렬적으로 진행하여 관련 보훈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유엔참전국 평화캠프 프로그램에 다크 투어리즘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별개의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청소년들이 해외 유엔참전국 참전비에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한국전쟁을 활용한 공공외교 추진이 가능하다.

태국 참전기념비	1974	경기도 포천시	전투를 상징하는 소총의 개머리관 모형을 표현
남아프리카 공화국 참전기념비	1975	경기도 평택시	공군과병을 의미하는 비행기 모형과 남아공의 보호수를 상징하는 영양으로 구성
에티오피아 참전기념비	1968	강원도 춘천시	기둥에 에티오피아 전설의 동물 형상을 부착하여 구성
네덜란드 참전기념비	1975	강원도 평창군	네덜란드 국기인 삼색기를 새긴 풍차 모양으로 구성
콜롬비아 참전기념비	1975	인천시 서구	마야문명의 상형 글자
룩셈부르크, 벨기에 참전기념비	1975	경기도 동두천	3개 기둥이 상층에서 모이는 형상을 세우고 정면 기둥의 벽면에 태양을 상징하는 원형조형물 부착
의료지원단 참전기념비	1976	부산시 영도구	기둥형 기념비

표 2. 국내 UN 참전국 참전비 현황

Table 2. Domestic Status of Contributions by UN Combatant Nations

참전비명	연도	소재지	상징적 의미
미국군 참전비	1975	경기도 파주시	육·해·공·해병대의 참전을 의미하는 4개 부조, 50개주를 상징하는 국기 게양대 50개, 영령들을 국민 모두가 보호 안치한다는 상징성을 가진 내부 비로 구성
영연방 참전기념비	1967	경기도 가평군	정의의 십자군을 상징하는 4각형의 비신을 통해 대영제국의 거대함을 표현함
캐나다 전투기념비	1983	경기도 가평군	단풍나무잎 모양으로 캐나다 국기를 상징
프랑스군 참전기념비	1974	경기도 수원시	영령들을 보호하고 안정시키는 비신, 희생자의 영원한 안식을 비는 좌우 외장, 희생 속의 승리의 영광을 표현한 입상
호주 전투기념비	1963	경기도 가평군	호주의 상징인 캥거루와 기단 위 '자유와 평화의 십자군'의 기상
뉴질랜드 참전기념비	1988	경기도 가평군	자연석 기념비
터키 참전기념비	1974	경기도 용인시	터키 국기에 있는 초승달과 별이 부착된 모형을 표현
그리스군 참전기념비	1974	경기도 여주시	그리스 신전
필리핀 참전기념비	1974	경기도 고양시	통일성과 안정성을 살리는 정삼각형 구도의 모형으로 구성

## V. 결 론

한국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많은 국가와의 보훈공공외교를 전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전개된 한국전쟁 참전국과의 보훈 현황을 검토하며, 향후 발전방향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지금까지의 보훈 정책은 22개국의 주요 유엔참전국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한국전쟁은 기존 22개국인 전투부대 참전국과 의료 지원국뿐만 아니라, 물자지원국과 전후복구지원국, 지원의사 표명국을 포함하여 총 63개국의 국가가 참여하였다.

다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보훈공공외교는 22개국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나머지 40개국 이상에 대한 보훈 정책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맞아 적극적인 공공외교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러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보훈 정책을 제언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물자지원국과 지원의사 표명국으로 범위 확대와 기존 유엔참전국 보훈 강화의 관점에서 보훈공공외교의 발전방향을 제언하였다.

국내에는 다양한 보훈시설이 있으며, 이를 활용한 적극적인 다크 투어리즘 전개는 한국전쟁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외 보훈시설을 활용하여 국내 청소년들의 보훈 의식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전쟁은 국제사회와 한국을 연결해

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보훈공공외교를 통해 과거를 기억하고 지속가능한 국제보훈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 References

- [1] Sam Song and Hogeun Yoo. (2021). A Study on Public Diplomacy Through Veterans: Focusing on African Cases. *Korean Veterans Studies Journal*, 20(2), 57-84.
- [2] Seungkwon Kim, Sangcheol Kim, Yukyung Kim, Jongseong Kim, Yongha Kim, and Jooyeon Lee. (2007). Research on the Reform of Korea's National Veterans System. Policy Report,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d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3] Mikyung Ra. (2015). Veterans and Diplomacy: Expanding the Scope of Veterans Policy Through Public Diplomacy. *Korean Veterans Studies Journal*, 14(4), 7-32.
- [4] Ilhwan Oh. (2015). The National Security Effects of Veterans Diplomacy. *National Thought*, 9(4), 119-148.
- [5] Siyoung Hyeong and Ilhwan Oh. (2015). Exploration of the Justification and Direction of Veterans Diplomacy. *Korean Veterans Studies Journal*, 14(4), 77-104.
- [6] Sookkyung Jung. (2011). Development Directions of Veterans Policy Afte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Korean Veterans Studies Journal*, 10(4), 199-230.
- [7] Mikyung Ra. (2016). A Study of Korea's Veterans Policy Through the Cases of Korean War Veterans. *Korean Veterans Studies Journal*, 16(4), 37-62.
- [8] Haengbok Kim. (2005). Let's Learn! Korean War History Vol. 2: From the North Korean Invasion to the Chinese Intervention. Seoul: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ilitary History Compilation Research Institute.
- [9] Youngjo Yang. (2013). Material Support Activities for Korea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uring the Korean War - Focusing on the Re-establishment of UN Material Support to Korea from 1950 to 1958. *Military*, 87, 53-86.
- [10] Guinness World Records. (2010). Most Countries to Support an Ally in War. Online Resource.
- [11] Dongchan Park. (2014). The Korean War in Statistics. Seoul: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ilitary History Compilation Research Institute.
- [12]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012). Forum on the Status of Countries Supporting the Korean War. Press Release.
- [13]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013). Scale of UN Force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Online Resource.
- [14]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2022). Continuing Peace Together, Building Future Friendships - Inauguration Ceremony of the 2022 UN Veterans Descendants Peace Camp on the 4th. Press Release.
- [15]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2020).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Support of 1 Million Masks to UN Veterans of the Korean War. Press Release.
- [16]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2022). Economic Community Hosts Appreciation Event for Korean War Participating Countries. Press Release.
- [17] Jonggi Han. (2015).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memorative Facilities of UN Participating Countries.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National Archives of Korea. Online Resource.
- [18] Malcolm Foley and J.J. Lennon. (1996). Heart of Dark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2(4), 195-197.
- [19] Sunggon Jang and Dongjin Kang. (2017). Defining and Analyz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Sustainable Dark Tourism. *Urban Design*, 18(2), 63-80.
- [20] Sookkyung Han and Gwangik Jo. (2010). Risk and Tourism in Modern Society: The Case of Dark Tourism. *Tourism Studies*, 34(9), 11-31.
- [21] Philip Stone. (2006). A Dark Tourism Spectrum: Towards a Typology of Death and Macabre Related Tourist Sites, Attractions and Exhibitions. *Tourism: An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Journal*, 54(2), 145-160.
- [22] Ara Jo. (2013). Dark Tourism and the Authenticity of Tourist Experience: The Case of Disaster Tourism in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19(1), 130-146.
- [23] Hyewon Jang. (2011). Motivations for Dark Tourism: A Comparison Between Local Residents and Tourists Visiting the Jeju 4.3 Peace Park. *Tourism Studies*, 35(6), 77-97.

※ 본 논문은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의 지원을 받았음.